

서효인의 '소설처럼'



존엄과 품위가 있었던 소년에 대하여

-콜슨 화이트헤드 작 '니클의 소년들'

때는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명연설을 남긴 1960년대다. 엘우드라는 흑인이었기에 별다른 꿈을 갖기 어려웠다. 다만 킹 목사의 목소리가 담긴 앨범 '자이언 힐의 마틴 루터 킹'을 반복해 듣는다. 그는 할머니의 강인하고 헌신적인 교육으로 바르게 자랐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했다. 그를 아는 모두는 그가 성실하고 착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인간의 품위와 존엄을 지키는 쪽으로 행동하길 주저하지 않는다. 굳이 그렇게 행동하는 흑인더러 어떤 이들은 "생각이 있느냐?"고 묻는다. 엘우드는 가끔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엘우드는 미국의 소설가 콜슨 화이트헤드의 소설이자 2020년 풀리처 수상작 '니클의 소년들'의 주인공이다. 니클 감화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문제를 일으키는 소년들을 감금하여 교화시키는 소년원이다. 그곳에서도 흑인과 백인의 공간은 분리되어 있었다. 엘우드가 감화원에 가게 된 것은 경찰과 판사의 터무니없는 오판으로 인한 누명 때문이지만, 그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엘우드의 미래 같은 건 결정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니클에 가기 전에 엘우드와 엘우드의 부모는 호텔에서 일했다. 백인은 손님으로, 흑인은 노동자로 일해야 하는 호텔에서. 엘우드가 진학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갈 수 있게 된) 대학은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그 길에 얻어 탄 차는 공교롭게도 도난된 차량이었다. 그렇게 엘우드는 니클에 왔다.

니클 감화원에서 엘우드는 품위와 존엄의 편에 선다. 그는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를 돕다가 체벌을 당한다. 다시 말해 품위와 존엄을 이유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는다. 그곳은 백인 아이들에게는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불리고 흑인 아이들에게는 '화이트 하우스'라고 불린다. 백인에게 그곳은 몸에 아이스크림처럼 형형색색의 땅이 들기 때문이고, 흑인에게 그곳은 마치 백악관처럼 엄정하고 권위 있는 집행 기관이기 때문이다. 집행은 물론 매질이다. 사회와 가정에서 문제아로 이미 찍혀 있던 아이들은 그곳에서 종종 갈 곳 없이 사라지고는 했다. 엘우드의 시선을 따라서 소설은 니클의 소년들을 하나하나 지목한다. 소년들의 고통과 소년들의 체념과 소년들의 죽음을, 유기된 시신을 발굴하듯 독자 앞에 풀어놓는다.

소설의 놀라움은 물론 찾아버린 퍼즐 조각처럼 슬픈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반전이 있었지만, 그보다 눈에 익어 놀라운 장면이 따로 있었다. 소년들을 가혹하게 때리고 성적으로 농락하고 죽음을 이르게까지 했던 가해자들이 하나같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기강을 조금 잡으려 했다'고 말하는 뻔뻔함이 었다. 아무렇지 않게 평범한 노인이 되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현실감이었고. 피해자들은 40년~50년 지난 사건 때문에 지금껏 고통 받고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고통의 장면은 정교하게 묘사된 소설의 한 페이지보다, 미장센이 살아 있는 영화의 한 컷보다, 그 무엇보다 강렬하고 끈질기고 생생할 것이었다. 이 소설은 그 지역의 생생함을, 그 놀라움을, 그리하여 어쩔 수 없는 비

탄을 그린다. 마치 어디서 여러 번 들은 것처럼 익숙한 이야기다. 바로 우리 곁의 이야기다. 여태 남아 있는 오월의 상흔을 기억할 수 있다. 믿을 수 없는 학대가 자행된 시설들을 떠올릴 수도 있다. 30년 전 내 몸을 화가 가리았을 때까지 때리던 학교 선생이 기억될 수도 있다. 15년 전 같은 반 학생을 때리고 괴롭히고 폭행했던 녀석을 소환할 수도 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에 몸이 부르르 떨릴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화면 속 폭력적 장면이 빠르게 뛰고 어गे가 움츠러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피해자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과 품위가 무너졌던 그날의 기억을. 존엄과 품위를 완전히 벗어 던진 가해자의 행동들.

니클 감화원에서 엘우드의 친구가 된 이의 이름은 터너다. 터너 또한 엘우드에게 묻는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엘우드는 늘 생각했다.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엘우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짐승으로 사는 것에 대해. 어떤 가해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짐승에 가깝다. 짐승이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듯이, 가해자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 다. 존엄과 품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사람에게 하는가? '니클의 소년들'에서 엘우드의 친구, 터너는 조금의 힌트를 준다. 그것은 이름을 지키는 일이고, 그 일의 자서한 방법은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

의료칼럼



강석준 보라안과병원 원장

안구건조증의 불청객, 봄

영양을 공급하고, 눈을 깜빡일 때 눈꺼풀과 안구 사이에 마찰을 줄이는 윤활유 역할을 해 준다.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항균 작용을 하는 눈물의 성분을 이용해 이를 파괴하고 씻어 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눈에 생긴 노폐물과 이물질을 제거해 주고, 눈에 상처가 났을 때도 치유 물질을 공급해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점안하며 건조한 증상을 해결하고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라면 누구나 안구 건조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인공 눈물에만 의존하다 보면 만성적인 안구건조증이나 다른 안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눈의 건조함과 이물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안구건조증은 눈물 분비가 줄어서 눈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부족한 '눈물 생성 부족형'과 눈물의 증발을 막아 주는 기름층을 분비하는 마이봄샘에 문제가 생겨 눈물이 빨리 마르는 '눈물 증발 과다형'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다수의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눈물의 양이 부족한 환자가 아닌 눈물의 질이 좋지 않은 환자다.

눈물은 기본적으로 수분이기 때문에 건조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면 더욱 빠르게 증발이 된다. 이를 막아 주는 것이 눈물층의 기름 성분인데 이런 기름 성분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을 경우 눈물이 쉽게 증발하고 안구 건조증이 찾아온다. 눈물층의 기름 성분은 마이봄샘이라는 곳에서 주로 분비되는데, 마이봄샘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분비되어 눈을 쉽게 마르지 않게

한다. 그러나 이곳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이상이 발생하면 기름의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성분 불균형으로 눈물이 쉽게 증발한다.

눈물 생성 부족형 안구건조증 환자들은 인공 눈물 안약만으로도 안구건조증이 호전될 수 있지만 증발 과다형 환자들은 마이봄샘의 염증을 같이 치료해야 안구건조증이 호전된다. 중증도 안구건조증은 정밀한 마이봄샘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하고, 온열 찜질 치료를 비롯해 레이저 치료로 막힌 기름샘 통로를 열어주고 비정상적인 혈관을 제거하는 치료가 활발하게 시술되고 있다.

일상생활의 작은 노력을 통해서도 안구건조증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은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눈 깜빡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래 안구건조증이 심한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깊게 깜빡여서 눈물 분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내 눈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농도와 성분의 인공 눈물과 안약을 점안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실내의 공기가 건조하지 않도록 실내 습도는 60% 정도를 유지한다. 방안은 날려두거나 식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출 시에 바람 등에 의하여 눈이 시리고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안경이나 모자 등을 착용하여 바람이 눈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차 안에서도 히터 바람이 눈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조절해 주어야 하며,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묘약(妙藥)은 있다

수 없다. 건설 현장의 열악한 작업 여건에 비해 추락 대비 가시설은 여전히 허술하다.

둘째, 건설업은 무거운 건설 자재 운반과 조립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다. 예컨대 무거운 건설 자재의 이동 중 낙하 사고나 건설장비의 전도, 조립 중 작은 오류나 실수로도 작업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셋째, 작업자의 안전 인식 부족과 '관행'에 따른 작업 방식이 잠재적 사망 재해로 이어진다.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설계도면을 숙지하지 않고 작업 순서도 잘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제까지 해 온 '경험적 작업 방식'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해 12월 10일 국토안전관리원이 새롭게 출범하였다. 건설 현장의 사망 재해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 1월 18일 전국 권역별로 5개 지사도 설립했다. 그중 호남지사는 올해 '재해 없는 행복 국토 조성'과 '건설 안전사고 제로화'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 권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중점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가 집중되는 공사비 50억 미만의 민간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 굴착 공사, 흙막이 벽체 변형, 가설비계, 동바리 설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점검과 더불어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공종별 안전 조치 요령, 관행적 작업 방식 개선 등을 위한 안전 컨설팅도 병행한다.

점검 대상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현수막 부착 활동과 건설단체와 안전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 현장은 안전 의식이 낮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가 없이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위해 취약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3년 간 여름과 가을철에 세 차례의 태풍이 호남을 관통하며 큰 피해를 입혔다. 해안 도서 지역 등이 취약 지역으로 판단된다. 도서 지역은 고령자의 거주 비율이 높고 집중 호우와 강풍에 대한 대비도 취약하다. 따라서 도서 지역의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망 재해는 여전히 높다. 그만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따로 없음을 의미한다. 건설 현장 사망 재해 줄이기와 관련해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할 일이다.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다고 한다. 중소 건설 사업자가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국토안전관리원의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점검과 안전 컨설팅 활동 등이 '안전사고 예방 백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올해는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팬데믹(Pandemic)에서 벗어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염원해 본다. 희망의 봄이 머지않았다.

社說

농촌 고층아파트 난립 방지 제도 보완해야

도시 경관을 해치는 고층 아파트가 대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도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지역까지 용도용적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전남의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도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남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근 본보가 분석한 결과, 3년간 용적률 400% 이상을 쟁긴 사업 대상지는 무려 열여덟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800% 이상인 경우도 일곱 건이나 있었다. 두 건은 1000%를 초과하기도 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산정할 때 주거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위원회가 지역 여건이나 경관 등에 대한 검토보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최대 용적률을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수익만 높여 주는 주택 계획이 여과 없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건축위원회는 2019년 5월 여수 돌산읍 주상복합아파트(지하 6층 지상 36층)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69.47%, 1034.81% 적용해 조건부로 가결해 주었다. 당시 건축위원회가 과도한 용적률을 허가해 주면서 여수·순천·광양·목포 등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화순·구례·완도 등지에서도 30층 이상 아파트들이 잇따라 건립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도시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용도용적제의 일괄 적용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마땅하다. 시군에서 올라온 안건이 현실성이 있는지 건축위원회의 간간한 검토와 심의도 필요하다. 여기에 사업 대상자 개발허가제 도입, 경관 명칭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축위원회가 지역 여건이나 경관 등에 대한 검토보다는 국토의 계획

'코로나 우울증' 청소년 지원 대책 시급하다

최근 10년 사이에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으로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엇그제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전국 초중고생은 모두 147명이었다. 140명이던 2019년보다 일곱 명이 늘었으며 1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2.75명으로 2009년(2.71명) 이후 가장 높았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생도 지난해 12명으로, 전년보다 한 명 늘었다. 한때 연간 6~7명까지 줄었다가 다시금 증가세가 이어지는 추세다.

이처럼 지난해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난 데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결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학업이나 교우 관계에서 상실감이 적지 않고,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나 우울감·고립감·무기력감 등으로 인해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청소년들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심리 상담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이 전문가를 찾아가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정신 건강 담당 전문가 양성도 중요하며, 교육부가 17개 시도에 신설키로 한 '권역별 정신건강센터'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질과 음질을 개선한 '리마스터링'(Remastering) 버전이 재개봉되면서 영화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1990년대 영화 팬들을 흥분시켰던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 '열혈남아' 등도 재개봉 대열에 합류했다. 만우절이었던 지난 2003년 4월 1일, '거짓말'처럼 세상이 떠나 버린 장국영의 '패왕별희' '아비정전' '영웅본색' 등 다섯 편의 작품은 25일부터 관람객들을 만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반지 점프를 하다' '봄날은 간다' '8월의 크리스마스' 등도 개봉 대기 중이다.

그때 그 영화

영화나 책이나 세월의 영화는 유행 좋은 영화관에서 대형 화면으로 봐야 해." 사실, 최근에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넷플릭스'나 '왓치' 등을 통해 원하는 영화를 편하게 관람할 수 있지만 '영화관'에서 보는 느낌은 확연히 다르다는 생각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가 관람객이 급감한 영화관이다. 신작들은 개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영화 배급사들은 '재개봉'이라는 카드로 상황을 돌파 중이다. 하지만 최근 화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기고



백광섭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 건설안전점검실장·기술사

'백약이 무효'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온갖 약을 다 써봐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그럴까?

2019년 산업재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사망자는 총 855명이다. 이 가운데 건설업 사망자가 428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통계 자료가 특히 눈길을 끈다.

통계청의 2010년 이후 산업재해 중 건설업 사망자수와 재해를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건설 현장의 재해율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분석된다. 이는 최근 10년 간 건설업 사망 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좀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첫째로 건설업은 실외 노출 작업과 고소 작업이 많은 반면에 안전시설은 대부분 임시 시설이다. 이러한 가(假)시설로는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히 지켜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